

이현호, 황영미 선교사의 주간소식지(2025/12넷째주)

충효교회에서 마지막 성탄절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성탄절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대만에서 보낸 성탄절 중에 가장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인원도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6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성탄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느끼는 감정은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이제 2달 정도 후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하나씩 정리해 가는 마음이 들었나봅니다.

성탄절 주일을 보내고 화요일 어르신 모임을 참석한 것 말고는 몇 일동안 쉼을 가졌습니다. 몇 년동안 한번도 보지 않았던 한국 드라마도 거의 밤을 세워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돼” 마음속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틀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충효교회 사역에 대해 조금은 시들해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저와 아내를 칭찬해 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조금은 위안이 되지만 그렇게 힘을 내게 하지는 않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목양을 하고 목회를 했지만 결국 그들과 하나되지는 못했구나 하는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판단하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여호수아서 본문으로 큐티를 하면서 가나안땅을 정복한 후 요단 서쪽에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땅을 차지한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일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들을 질책하고 더 나아가서 공격하러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책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제 마음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약 두 달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도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면 부족한 교회 재정의로 제가 오기 전과 같이 목양하는 목사가 없이 매주 다른 설교자만 세워서 예배만 하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학생 부부가 왔지만 목회 실습으로 와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제가 떠난 후 교회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와 충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 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성안이는 이번 주 수요일에 의병 제대가 결정되어서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군 생활을 빨리 끝낼 수 있어서 기뻐하는 동시에 그 만큼 병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큰 아들 은우는 내년 2월초에 만기 제대를 합니다. 1월이나 2월 중에 대만에서 다섯 식구가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12.26

대만 타이베이 이현호, 황영미 선교사